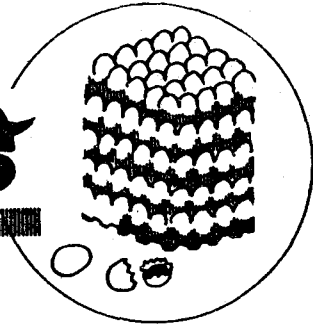


# 계란시장



단위 : 원 / 10개

지역 월일	서울 지역					대구		부산		전주		광주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경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특란	대란
10월 2일	370	320	280	240	200	350	310	390	340	370	330	380	340
8일	360	310	270	230	190	350	310	370	320	360	320	360	330
10일	350	300	260	220	180	330	280	350	310	350	310	360	320
12일	340	290	250	220	180	330	280	340	290	340	300	360	320
15일	330	280	240	210	170	310	260	330	280	320	280	350	290
18일	320	270	230	200	160	310	260	320	270	300	270	320	280
20일	310	260	220	180	150	290	240	310	260	300	270	320	280
22일	300	250	210	170	140	290	240	300	250	280	250	310	260
23일	290	240	200	160	130	280	230	290	240	280	250	310	260
78년 8월	347	279	236	199	166	334	280	350	298	341	285	348	298
9월	408	358	308	273	238	390	336	410	364	404	364	396	355
10월	360	310	284	249	213	355	305	364	315	354	315	360	316
11월	312	262	237	202	162	308	258	318	268	312	263	298	261
12월	310	260	235	200	162	300	250	307	256	304	262	330	263
79년 1월	308	258	228	197	166	302	152	311	260	293	253	300	260
2월	275	225	195	165	143	280	230	291	241	272	232	276	238
3월	315	271	241	211	181	318	268	323	290	292	265	324	284
4월	353	313	278	248	218	348	297	354	304	327	293	348	307
5월	327	278	229	183	145	317	256	322	260	310	246	320	266
6월	284	237	194	156	116	288	228	300	236	289	230	301	241
7월	298	248	218	178	143	309	249	318	260	305	245	309	251
8월	293	238	198	164	129	284	235	306	247	291	240	305	205
9월	359	302	262	222	182	352	302	370	315	375	321	380	325

## 침체예상

추석이 지나면서 시세는 폭락을 거듭하면서 채화현상을 빚고있어 자못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의 계란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약 15%의 증가를 보인 반면 소비는 이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돈과동에서 연유한 육계불황으로 노계처리애로와 종란의 식란처리도 나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년에 비해 일반주부들에 의한 소비는 다소 증가했으나 유흥업소와 관광철 소비가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체도시락을 전문으로 공급하는 요식업계에 의하면 도시락당 계란 약 1.5개가 이용되는 놀이용 단체 도시락 주문이 작년과 비교할 때 3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한편 모식품업체에서 지난 9월경 이스라엘과 덴마크에서 난분(卵粉) 40톤 (대란기준 약 300만개분, 동식품업체의 25일간 사용가능물량)을 수입하므로서 양계업계의 분노를 사고있다.

본회는 이의 중지를 촉각 관계당국에 건의했으며 따라서 업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된 난분의 수입가격은 톤당 2,800 \$ (C&F가격)로서 kg당 한화 약 1,400원 30%관세를 가산하면 kg당 1,820원이 되는 반면 국내산 계란의 경우, 난분 1kg에 해당되는 가격은 약 1,920원 정도로서 kg당 100원이 싼 것은 사실이나 계란수매에 일시적으로 애로가 있다해서 손쉽게 수입계란을 이용한다는 사고방식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다.

매년 10~27%전후의 상승세를 보이던 계란시세는 금년들어 오히려 약 5%의 하락세를 나타내 채란양계농가의 경영수지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 당국에서는 계란파쇄기(세척, 파쇄, 껍질분리, 난황과 난백분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짐, 수입가격 약 8만불)를 도입, 계란가격하락시 계란을 구매, 냉동비축하였다가 물량에 달릴때 식품업체에 공급하는 방안은 시급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시세는 11월 한달 동안 침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란가격 월별 추세(서울지역 1976~79년) (단위: 원/10개)

